제44회 광일 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숭고한 희생 잊지않겠습니다

'제44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14일 오후 3시30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수상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 해로 44회째를 맞고 있다. 영광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상이군경 윤평현씨 월남전 참전 사지 위축 후유증…사회봉사 앞장

윤평현(68)씨는 지난 1969년 월남전에 참전해 앙 케페스전투 등에 참여, 후유증으로 사지가 저리고 위축되는 말초신경병과 당뇨망막 병증으로 시력을 잃어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윤씨는 시력을 잃었음에도 1972년 한국통신에 입사하여 지난 2001년까지 29년간 일했다. 그는 29년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여 한국통 신 사장으로부터 공로상, 공적상을 수여받았다. 윤씨는 29년간 재직하면서 직장 내 산악 동호회 활동을 하며 무등산 살리기 환경정화 운동 및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을 통해 깨끗한 광주 만들기에 앞장섰다.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 지부 감찰로 일하고 있는 윤씨는 독거 회원들을 보살피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중상이자 부인 김순옥씨 감전사고로 2급 장애 남편 대신 생계 꾸려

김순옥(여·61)씨는 지난 1977년 25사단 수색 대대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2급 판정을 받 은 박환수씨의 아내다.

김씨는 지난 1977년 남편 박씨가 부상으로 인한 좌절감에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가족의 반대에도 결혼했다. 그 후 슬하에 3남을 둔 김씨는 가

장이 되어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심정으로 양계장에 다니며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차려 자식들 모두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김씨는 현재 상무특별지회 마을 부녀회 총무를 맡아 도움이 필요한 상무용사촌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솔선수범하며 타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미망인 장장순씨 아들·딸 키우며 중풍 시어머니 15년 보살펴

장장순(여·79)씨는 지난 1963년 경기도 20사 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제대를 7개월 남겨놓고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한 故 최경선씨의 배우자 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최씨와 결혼해 슬하 에 1남1녀를 뒀다.

장씨는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지만 아들과 딸, 시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이 되어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한복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15년 간 지극정성 보살폈다. 장씨는 또, 하숙집에서 30년간 일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장씨는 2009년부터 매주 1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가사일을 돌봐주고 90세 이상 고령인노인들을 위해 점심을 대접하고 있다.



전몰군경 유족 허산례씨 세살때 전장서 아버지 순직…현충시설 지킴이

허산례(여·66)씨는 전몰군경의 유족이다. 허씨는 지난 1950년 아버지 허금남씨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3살 되던 해 제주도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마저 주위의 권유로 재혼을 하면서 숙부의 호적에 옮겨져 성장했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등힘든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1968년 남편 오상기

씨와 결혼해 슬하에 3남2녀를 뒀고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다. 지난 2007년 남편 오상기씨가 뇌졸 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남편을 간호하고 있음에도 7년간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광주공원 현충탑 등 현충시설 지킴이 정화 봉사활동, UN전사자 유족돕기 성금모금활동 참여 등을통해 보훈단체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별부문 김태모씨 백마고지 전투 등 혁혁한 공…화랑무공훈장

김태모(85)씨는 6·25전쟁 당시 1951년부터 휴 전까지 육군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 히 저격능선전투에서 가슴에 총알이 박히는 부 상을 당하고도 백마고지 전투까지 참전했다. 김 씨는 저격능선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화랑무공훈 장을 수여받았으며,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상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광주광역시지부 북구 회원으로 시지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우회원을 찾아 위로하는 등 친목도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으며 거리질서 캠페인 등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



'학업성취도평가' 예정대로 20일 치러질까

교육감협, 국정위 간담회서 중단 제안…교육부 "검토중"

오는 20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뀌어야 한다는 게 교육감협의회 주장이다. 예정대로 치러질까.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국정 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즉각 중 단을 요구하면서 실시 여부를 놓고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 회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오 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평가의 즉각 중단' 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닌, 일제식 지 필고사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줄세우기식' 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교육 흐름과 맞지 않는 만큼 중단하고 표집 단위 평가로 바 교육부는 전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 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 터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오고

있다. 학업성취도는 '보통학력 이상'(교육 과정 50% 이상 이해), '기초학력'(20% ~ 50% 이해),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으로 나눈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를 평 가한 뒤 결과를 축적·체계화해 개인별 학 업성취 수준의 변화를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경우학교 노력에 따른 학생 실력 향상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다, 전국적으로 5000개가 넘는 중·고교 학업성취도 여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른바 '학교 실력', '학생들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점을 들어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전남교육청은 광주 3만3235명(중 3 91개교 1만6245명·고 2 55개교 1만6968명), 전남 3만3292명(중 3 254개교 1만6907명·고 2 99개교 1만6380명)의 학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도 이미 관련 연수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6일 문제지가 배부될예정이다

교육부측은 이와관련,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검토중"이며 "일선 학교와 교육정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좋은 일 생기려나…지리산서 '길조' 흰오소리 포착

지리산에서 '길조'로 여겨지는 흰 오소리〈사진〉가 포착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 부사무소는 온몸이 흰색을 띤 오소리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흰 오소리는 야생동물 관찰용 무인센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단 측이 제공한 사진 을 보면 주변 돌과 흙, 풀과 나무들 사이에 서 포착된 흰 오소리는 그 색상이 뚜렷하다.

지리산공원남부사무소는 이 오소리가 멜라닌 색소 결핍증인 알비노(Albino·백 색증) 현상으로 얼굴을 제외한 온몸이 하얗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알비노 현상에 따른 돌연변이로, 실제 발생하는 개체는 매우 적어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다.

인권위 권고에도··· 명문대 합격자 게시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광주 일부 고등학교와 학원들이 특정학교 합격 홍보 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 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광주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인 터넷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 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했다.

인권위원회는 학교, 동문회, 학원 등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에 대한 지도·감독 을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해왔다.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원들의 경우 명 문 대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 교육의 성과 인 듯 여기는 인식에서 이같은 합격 홍보 물 게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리산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알비노 오 소리가 발견됐다.

최기호 지리산공원남부사무소 자원보 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사진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제공〉





